

민주 “의원 300명 유지 지역·비례 2:1로”

이총서 선거제 개혁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채택 비례대표 늘려 다양성·대표성 강화...석패율제 도입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여서 야 3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중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 같은 안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

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이 중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며,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 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느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특위원

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데, 선거법을 잘 만들어서 정치개혁도 잘 하고 우리 당도 큰 성과를 올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내달 ‘북핵 방미단’ 추진

10~11일 미북 정상회담 입장 전달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 등으로 방미단을 구성, 다음달 10~11일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조야에 미북정상회담의 방향성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중순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같이 출발하되, 이후에는 한국당 방미단도 별도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방미단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 위원장과 김재경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서면을 보내거나 미국의 언론·싱크탱크와 접촉해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남북 대화·북미대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대화의 목적은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북미대화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이날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갑윤 의원, 부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이 각각 맡았다. 위원에는 강석진·이양수·송인석·송희경·윤종필 의원과 김숙향 전 새누리당 중앙위 지도위원, 이종환 흥익대학교 겸임교수 등 원외 인사 2명이 함께 임명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책위의장 조정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조정식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의원의 정책위의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 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조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며 “의총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86’ (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으로, 경기지역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내리 4선을 했다. 지난 1992년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고, 1993년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보좌관을 맡아 제 의원이 1999년 타계할 때까지 동고동락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시흥에서 당선했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지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또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후반기 들어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아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실무를 주도했다.

조 의원 전임자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 까지가. 이와함께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재판정탁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서영교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동철 의원이 2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홍보 푸드트럭 카페 ‘손다방’을 열고 시민들에게 선거제 개편 열망을 담은 ‘개혁 커피’, ‘연동형 동글레차’ 등을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손학규, 총장로서 연동형 비례제 외치다

손다방 열고 민심늑차·개혁커피 나눠주며 도입 캠페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광주를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21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푸드트럭 ‘손다방’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캠페인을 했다. 손 대표는 푸드트럭을 찾은 시민에게 ‘민심늑차’, ‘개혁커피’, ‘비례대표 코코아’, ‘연동형 동글레차’로 이름 붙인 음료를 나눠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캠페인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바뀌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지방선

거에서 광주시의원 한 사람 빼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도 민주당이 50.2% 득표했는데 의석 수는 110석 중에 102석을 가져갔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제대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흐른다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하고 극복해서 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민주주의, 내각의 장관들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총장로 방문에 앞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 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설 명절을 앞둔 상인을 격려했다.

이 간담회에서 그는 “상인들과 기업들이 죽을 지경이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약 130여 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바꾸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힘을 합쳐서 해결할 길을 찾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해주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이달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월 중에 다시 개최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안위 여야 간사는 22일 오전 만나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 송부기한(19일) 만료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화해 법적 허자가 없는 선에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회의에서 “송부기한이 지났지만 청문회 개최를 조건 없이 적극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청문 절차는 1월 안에 하는 것으로 해 개최 여부를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재익 의원은 “청문회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협치의 틀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사 진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제인 위원장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앞서 조 후보자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공격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9월 예정됐던 청문회를 열지 못했으며, 국회법상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결과 송부기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남뉴스

“30년 이상 터 지킨 가게에 문화자산 인증”

광주 동구의회 조례 추진

광주 동구의회가 30년 이상 터를 지켜온 가게를 지역 문화자산으로 인증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 부쳐진다.

조례는 30년 이상 한가지 업종을 유지하며 광주 원도심인 동구를 지켜온 상인

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하고자 추진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매해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 ‘동구 오래가게’를 인증하고, 동판을 설치하는 등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2대 또는 3대 이상 이어온 상점을 차등 인증하고, 한도액을 정해 건물 외부 수선이나 내외부 디자인을 지원한다.

전 의원은 “스토리텔링이나 지도 앱 제작에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본 투자는 고액의 이익을 증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가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